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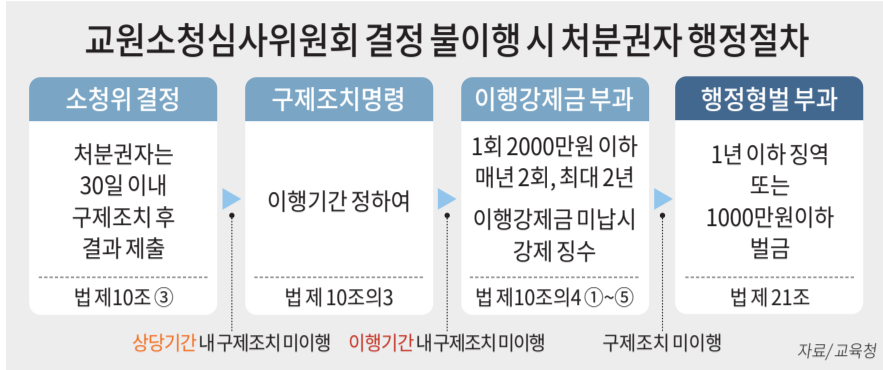
교원 구제명령 미이행시 최대 2000만원 강제금 부과

교원지위법 국무회의 통과

긴 소송전에 고통받는 사례 빈번 교원의 실질적 권리구제 제도화 미이행 횡수에 따라 강제금 차등

오는 24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시행을 앞두고 불이익처분 교원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구제 결정 시 신속한 권리 구제와 교권 보호 장치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교원 부당 징계 철회와 복직을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학법인이 이에 응하지 않고 버틸 경우 부당 징계 수위와 미이행 횡수에 따라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2000만원까지 차등적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최근 개최된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규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교원소청 심사 결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는 학교법인 등 처분권자에 대해 교육부장관이나 시도교육감 등 관할청이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집행해 교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교원지위법이 개정돼 오는 24일 시행을 앞두고 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앞서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 1991년 5월 31일 제정돼 교원소청심사제도(당시 '교원징계재심위원회')가 마련됐다. 이 제도를 통해 그간

억울한 처분을 받은 교원들이 많이 구제됐다. 하지만 처분권자가 그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긴 소송전으로 바로 구제받지 못하면서 고통받는 사례가 왕왕 발생해 왔다.

이번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안에는 구제명령 절차와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 반환절차 등 구체적인 집행 기준이 담겼다.

우선, 징계를 철회하거나 복직시키지 않고 버티는 사학법인에 대해서는 부당 징계 수위와 미이행 횡수에 따라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2000만

원까지 차등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학법인에 2년간 최대 4회까지 구제명령을 내린다. 미이행 횡수가 늘어날수록 이행강제금도 늘어난다.

가령 학교법인이 소청위 명령에도 불구하고 재임용을 거부하거나 파면, 해임, 면직, 임용취소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1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만, 최대 4회를 어기면 2000만원을 내도록 조치한다. ▲정직·강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1400만원 ▲감봉·견책 및 직위해제에 대해서는 300만~900만원 ▲그 밖의 불리한 처분에 대한 구제를 거부하는 사학법인은 200만~500만원을 물어야 한다.

이후에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법원 판결로 구제명령이 취소될

경우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은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를 중지해야 한다.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은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교육현장 일선에서는 반기는 분위기다. 나아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며 진행되는 가나긴 소송전도 이번 기회에 없어지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무엇보다 교원소청심사제도(행정심판)의 제도적 취지는 교원이 국·공·사립 학교 등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았을 때, 행정소송에 앞서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며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개정·시행을 계기로 학교 현장의 심각한 교권 침해 현실을 정부, 정치권, 사회가 인식해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시교육청 "학교 밖 마을학교 놀러오세요"

내달 '도담도담 마을학교' 사업 공모 27일까지 신청 접수, 50곳 내외 선정

서울시교육청이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교육결손 회복을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해 학교 밖 마을학교를 개설한다.

2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정서심리, 신체, 사회성 결손 극복을 위한 '교육회복종합방안' 일환으로 공모를 거쳐 10월부터 '도담도담 마을학교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모를 통해 서울 지역 곳곳에 교육역량을 갖추고, 안전하고 쾌적한 활동공간을 가진 작은도서관, 청소년 기관 등을 마을학교로 지정해 운영한다.

선정된 마을학교에서는 학습 및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기본학력, 정서심리, 독서활동, 문화예술, 틈새돌봄 등 마을기관별로 특화된 다양한 프로그램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이 진행한 도담도담 마을학교 사업을 통해 진행된 '서울교대생 멘토링 교실 신체놀이 지원' 모습. /서울시교육청

을 무료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최근 2년 동안 교육활동 실적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27일까지 사업 참여를 위한 신청을 받는다. 심사를 거쳐 50곳 내외의 기관을 선정해 오는 10월 5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서울시 및 자치구와 협력을 통해 도담도담 마을학교 사업을 운영해왔다. 원격학습을 지원하는 강사파견, 대학생 등과 함께하는 멘토링 활동, 정서심리 회복을 위한 방과후활동 등 25개 자치구에서 51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96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다.

/이현진 기자

고용노동부 상반기 특성화고 1403명 취업 지원

잡마켓 성과... 일-공부 병행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올 상반기에만 730개 기업에 1403명이 취업해 일과 공부를 병행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8월 62개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도제 준비 과정(잡마켓)을 운영한 결과, 1403명의 취업한 학생은 9월부터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일학습병행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잡마켓은 기업 견학, 직무체험, 면접 등을 통해 학생이 기업 적합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학생은 취업 전 기업 소개, 직무 자료, 기업 관계자

설명 등으로 기업 정보를 습득한 후 3개사 이상과 면접을 통해 희망 기업을 선택할 수 있다.

또, 기업은 채용 전 학생 소개 영상, 작품집(포트폴리오), 자기소개서 등을 통해 채용 인력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번에 취업한 학생들은 이번 달부터 학습근로자로 채용돼 이론·실무 훈련인 일학습병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구인·구직 시장에서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해 기업과 학생 모두에게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고 평가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대학혁신지원사업 평가

국민대

실용인재 양성 고평가 'A'

국민대학교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 및 종합평가(1유형)에서 최고 등급인 'A' 등급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19년부터 본격 시작한 대학혁신지원사업은 1, 2차년도 사업 종료 시 연차평가를 거쳤고, 사업이 종료되는 올해(3차년도)엔 사업기간 전체 주요 성과에 대한 종합평가가 이뤄졌다.

국민대는 ▲사업 추진 실적 ▲사업비 집행의 적절성 ▲사업 성과관리 및 종합성과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그동안 주력했던 국민대의 인재상인 '세상을 바꾸는 공동체적 실용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5개의 교육혁신 프로그램 운영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가장 대표적인 교육 커리큘럼인 알파프로젝트를 정규 교육과정화하여 참여자의 수를 늘리고 취업 분야와의 연계도 효과적으로 이뤄졌다는 평가다. /이현진 기자

호서대

교육 질·운영실적 우수 'A'

호서대학교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발표한 2021학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 및 종합평가(1유형)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에 선정돼 20%의 추가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을 미래 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혁신 성장 체제 구축을 위한 대학의 자율혁신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상태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은 "호서대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 평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수업의 질 저하를 예방하기 위한 대학의 노력, CanDo역량관리체계 등 교육 질 관리, 집중이수제 운영실적 등이 우수하다"며 "사회적 기업 창업 및 특허출원 등의 성과를 통해 대학의 성과가 지역사회로 파급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았다"고 전했다. /이현진 기자

인천대

소상공인 대학원 교육생 모집

인천대학교 '지역혁신 트라이버시티 연구소'는 소상공인 전문경영인 양성을 위한 '인천대 소상공인 대학원' 교육생을 내달 1일까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인천광역시 위탁사업으로 진행되는 교육은 인천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리더십 및 상권활성화를 이끌어 갈 전문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교육비 전액이 지원된다.

지원 자격은 인천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 상인회 임원·회원, 예비창업자로, 서류심사를 통해 선발된다. 내달 12일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3시간 기준으로 총 20회차 72시간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현진 기자

순천향대 'THE 대학평가' 3개 전공 순위 ↑

임상보건, 생명과학, 자연과학 각각

순천향대학교가 영국의 글로벌 대학평가기관인 THE(타임즈하이어에듀케이션)에서 최근 발표한 2022 THE 세계 대학평가전공별 순위에서 임상보건, 생명과학, 자연과학 등 3개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주목받고 있다.

이번 THE 전공별 세계대학 순위는 ▲논문 피인용도(35%) ▲교육여건(27.5%) ▲연구실적(27.5%) ▲국제화수준(7.5%) ▲산업체 연구 수입(2.5%) 등 5개 부문 13개 지표를 평가했다.

순천향대는 ▲임상보건 분야 국내 13위, 세계 601+ ▲생명과학 분야 국내 16위, 세계 801+ ▲자연과학 분야 국내

27위, 세계 1001+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임상보건 분야에 있어 순천향대는 서울, 부천, 천안, 구미의 4개 부속병원과 순천향의생명연구원(SIMS) 등 국내 최고의 독보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지난 4월에는 교육 및 의료 분야에 있어 세계 최고의 석학들과 함께하는 국제 심포지엄 'GLIF & GIMS 2021'을 개최하는 등 보건의료 혁신 방안 모색을 위해 힘쓰고 있다.

THE 전공별 세계대학 순위는 이번 생명과학, 자연과학, 심리학, 임상보건 분야를 시작으로 ▲기술·공학, 컴퓨터과학 분야 ▲사회과학, 경제경영, 교육, 법 분야 등의 결과가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